

남구, 관내 주민들 위한 '도심 음악회' 10월 한달간 개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깊어 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도심 속 음악회를 개최한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백운광장 일원 스트리트 푸드존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월동 푸른길 공원 토요일마다 주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 속 음악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먼저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품격 있는 무대가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음악회가 진행된다.

가을 향기와 어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선보이는 성악 공연을 비롯해 통기타, 마술쇼, 만돌린, 플루트 연주, 라틴 가요, 색소폰,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스트리트 푸드존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길 공원 토요일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마다 음악회 무대가 열린다.

약자지결한 분위기의 장터 특성상 총 5차례에 걸쳐 신명나면서도 흥을 돋우는 무대로 채워진다.

10월 한달간 이곳에서는 초대가 수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와 퓨전 난

타, 전통 민요, 효심을 노래하는 가수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광주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 펭귄마을 인근 공예특화거리 광장에서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0월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 줄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각설이 경력만 30여년에 이르는 김상기씨의 폼바타령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김동규씨가 도심 음악회 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광산구, 카자흐 카라탈과 우호도시 체결

한-중아 수교 30주년 기념...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제티수 주 카라탈 군과 우호도시 관계를 맺는다.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광산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카라탈 군과 우호·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와 인접해 있는 카라탈은 1937년 강제이주 당한 10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당시 고려인들이 정작한 곳이다. 현재도 약 3천9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카라탈 군이 대한민국 유일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산구에 우호교류와 상

호 문화 및 경제 관련 협력을 제안하며 추진됐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문화·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상호 방문 등 국제 우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하고 약속했다.

월곡고려인문화관을 중심으로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의 현장을 많은 시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년 고려인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인 중앙아시아 축제와 연계한 문화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구청장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이돈국 부구청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상절리를 표현한 최석현 공예명장의 나전칠기 접시와 박병규 청장의 감사 편지를 이 사베코프 예틀란 쇼예비치 카라탈 군수에게 전달했다. /김정관 기자

서구,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현장점검 추진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건설현장, 공동주택, 가스시설 등 7개 분야 110개소 중점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9일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이 농성동에 위치한 신축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 세부 항목별 점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평소 작업시 인명사고 예방 및 타워크레인, 펜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계기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안전 일번지 서구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2022 광주 동구 한국지역도서전'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제10회 광주 동구 생활 속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생활 속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시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2022 광주 동구 한국지역도서전'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제10회 광주 동구 생활 속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광주 지역 24세 미만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권 표현

하기'를 주제로 글쓰기, 그리기, 자유 표현 세 부문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주제 적합성, 인권 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그리기 24점, 글쓰기 3점, UCC 영상 및 카드뉴스 3점 등 우수작 총 30점을 선정했다.

수상작 중 대상은 '보호받고 싶어요(손예림)'가 최우수상은 다르지 않은 시우네 가족(강다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백승준), 사랑받고 싶어요!(김태은) 등이 차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강의', '인권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지원 지자체 부문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원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개인과 단체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북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시장경영혁신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말

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총 1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케이드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과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

